

# 건축가에게 듣는 ‘요즘 도시 한옥’의 쓰임새

-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13시~17시
- 집결: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 12:50



# 장소 및 일정

<p style="text-align: center;">집결: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 (12:50)</p>									
장소	가회동			깊은 풍경	계동				
	백인제 가옥	노스텔 지어 블루재	고회동 가옥		작은 계동	북촌 한옥 역사관 집집	계동h	배림 가옥	북촌 문화 센터
시간	A팀 13:00-13:50 B팀 14:00-15:00			13:50- 14:00	A팀 14:00-15:00 B팀 13:00-13:50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A팀 -----&gt;                      &lt;----- B팀</p>								
<p>노무현시민센터 (15:00)</p>									

- A팀: 가회동-계동 / B팀: 계동-가회동

가회동 가이드: 오정은 부회장(선문대학교)

계 동 가이드: 천경환 소장(깊은풍경 건축사사무소)



# 목차

---

		A	B
1. 백인제 가옥	-----	4	↑
2. 노스텔지어 (블루재, 히든재, 힐로재)	-----	6	
3. 교회동 가옥	-----	8	
4. 북촌한옥역사관 집집	-----	10	
5. 배림가옥	-----	12	
6. 북촌문화센터	-----	14	
7. 노무현시민센터	-----	16	↓



# 백인제 가옥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길 16



## 유례없는 특징을 지닌 전통한옥

백인제 가옥은 1913년 한성은행 전무였던 한상룡이 건립한 이래 한성은행, 최선익 등을 거쳐 1944년 백인제 선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성은행이 소유했던 시절에는 천도교 단체가 가옥을 임차하여 지방에서 상경한 교도들의 숙소 겸 회합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소유자인 최선익은 개성 출신의 청년 부호로, 1932년 27세의 나이로 조선중앙일보를 인수하여 민족운동가인 여운형을 사장으로 추대하는 등 민족 언론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1944년 이후에는 당시 국내 의술계의 일인자였던 백인제 선생과 그 가족이 소유했으며,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서울특별시 민족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인수 후 문화재 개·보수 공사를 거친 후 전시·체험공간으로 새로 태어났으며, 2015년 11월 역사가옥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한옥이며, 북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대지 위에 사랑채를 중심으로 안채와 넓은 정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는 별당채가 들어서 있다.

백인제 가옥은 동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주택과 구별되는 여러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일본식 복도와 다다미방을 두거나 붉은 벽돌과 유리창을 많이 사용한 게 그것인데, 이는 건축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랑채의 일부가 2층으로 건축된 모습은 조선시대 전통한옥에서는 유일한 백인제 가옥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문간채



▲사랑채 및 정원



▲안채 마당



▲별당채



# 노스텔지어

(블루재, 히든재, 힐로재)

- 위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9길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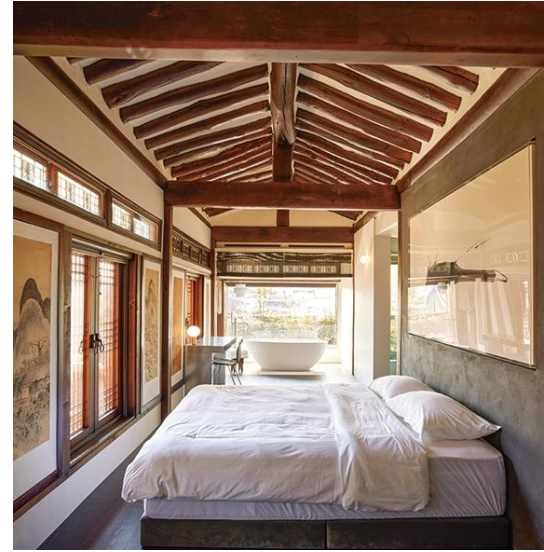


## 문화 관광 브랜드의 출발점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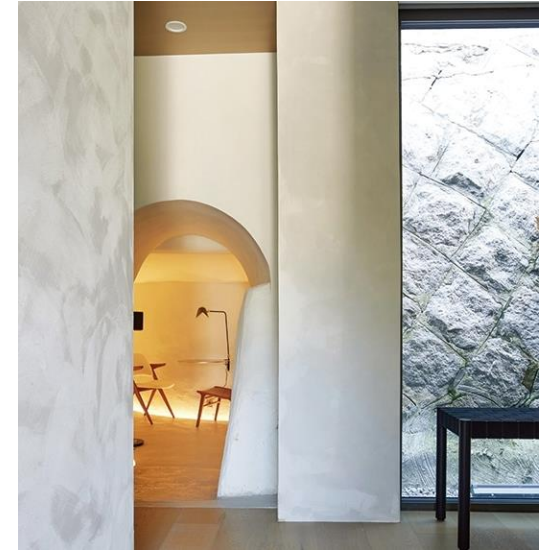
노스텔지어는 한옥 호텔 브랜드로, 북촌의 대표적 풍경을 보여주는 가회동 31번지에 위치하였다. 이곳에 블루재, 히든재, 힐로재의 한옥 세 채가 현재 운영중이며, 앞으로 세 채가 더 오픈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한옥 스테이는 한 집에 여러 팀이 묵는 형태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공간이 한정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정원에 나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반면 노스텔지어는 독채 한옥 호텔을 고집하여 한옥 스테이의 고즈넉함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가회동은 예부터 명문가와 관료들이 살던 지역으로, 특히 현재 노스텔지어 블루재, 히든재, 힐로재가 위치하고 있는 31번지는 크고 반듯한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노스텔지어의 한옥은 공간마다 컨셉과 느낌이 모두 다른데, 영어에 '재齋'를 붙인 이름에 각 공간의 컨셉과 특징이 직관적으로 담겨있다. 먼저 블루재는 청와대를 지을 때 사용한 청기와를 담장에 올려 블루재라 이름 지었다. 청기와 외에도 ㄷ자구조, 우물천장, 기단 등 전통 한옥의 고유한 멋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유지·보존하는 방향으로 레노베이션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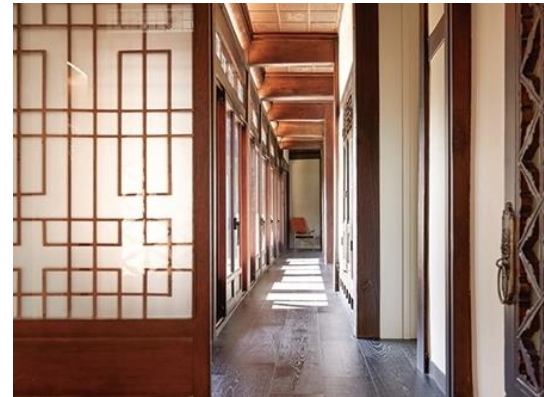
히든재는 안채 안쪽에 방공호로 사용하던 동굴이 남아있는 한옥으로, 별채에 자쿠지를 구성했다. 집이 품고 있는 고유하고 신비로운 스토리는 살리되, 디자인은 젊은 고객의 감각에 맞춰 최대한 모던하게 풀었다. 힐로재는 북촌 7경 언덕 위에 자리한 지은 지 10년 된 한옥으로, 전통을 그대로 유지·보존하기 보다는 과감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연출하였다.



▲블루재 침실



▲히든재 라이브러리



▲블루재 뒷마루



▲사랑채 노천 온수풀



# 고희동 가옥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6





##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의 집

조선의 막바지, 근대의 초입에서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집은 3대가 사는 가족 가옥이자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이면서, 후학에게 배움을 전하던 화실, 그리고 당대 예술가들이 모여 화회(畫會)를 여는 살롱이었다. 춘곡 고희동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직접 지어 1918년부터 41년간 머문 집이며, 서양 가옥과 일본 가옥의 요소를 두루 섞어 지었다. 개항 때 들어온 신식 재료인 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한옥에서는 드문 큰 화실이 자리하고 있다.

창덕궁 후원의 서쪽이라 하여 이름 붙은 원서동은 서울에서 드물게 고요하면서 품위가 남아 있는 동네이다. 원서동 16번지에 위치한 고희동 가옥에 들어서 넓은 마당을 지나면 한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서양식 현관에 일본 가옥의 요소가 묘하게 섞여있다. 처음에는 기본 ㄱ자의 전형적인 경기 지역 한옥으로 지었으나 이후 고희동이 직접 화실과 사랑방을 덧붙여 증축했다고 한다.

아내가 안채와 사랑채를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작은 계단을 만들고, 당시 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해 유리문을 복도를 따라 미닫이식 덧문으로 달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가 복도로 연결된 구조 때문인지 집을 들어서면 복잡하지는 않지만 미로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본 가옥은 고희동 사후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뀌며 2003년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따라서 종로구가 2008년 건물을 매입하여 안채 및 사랑채를 보수·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이 2004년 등록문화재 제 84호로 지정했다.



▲고희동의 화실



▲가옥 안 마당 전경(출처: 문화재청)



▲안채 복도(출처: 문화재청)



▲사랑채 복도(출처: 문화재청)

# 북촌한옥역사관 집집

- 위치: 서울시 종로구 계동 4길
- 구가건축 현장





## 북촌 역사와 기농 정세권을 기념하는 역사관

2021년, 102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하여 북촌한옥마을에 개관한 역사관으로, 공공한옥을 리모델링하여 도시형 한옥을 경험할 수 있다. 집집에는 여러 주제의 공간이 있는데, '북촌, 민족문화의 방파제'에서는 북촌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에 맞서 점차 영역을 확장한 조선집과 이를 통해 형성된 조선인들의 마을이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점이 된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전통한옥과 도시형 한옥'에서는 조선시대 양반집인 전통한옥과 이를 쪼개어 만든 도시형 한옥의 구조와 재료를 비교하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기농 정세권'에서는 도시형 한옥 보급을 통해 한옥집단지구를 조성하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기농 정세권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있다.



▲ 내부 전시



▲ 내부 전시



▲ 북촌한옥역사관이 위치한 계동길



▲ 표식



▲ 외부 전경



▲ 내부 전경

# 배림가옥

- 위치: 서울시 종로구 계동 89





## 전통적 화풍을 실현한 공간

계동 배림 가옥은 1936년경에 지어져 제당 배림이 생애 말년을 보낸 곳으로 등록 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 회화를 재조명하는 전시관과 세미나실, 1950년대 북촌에 위치한 근대한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배림의 방 등으로 운영 중이다.

가옥의 구조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북측과 서측의 ㄱ자형 안채와 동측과 남측의 ㄴ자형 바깥채가 분리되어 마주보게 구성된 뜰자형 가옥이다. 동쪽에 위치한 바깥채에 마당으로 들어오는 대문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안마당 이외에도 바깥채 작은 마당이 있다. 바깥채는 계동길에 면하는 길이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가옥의 경계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배림가옥의 규모는 계동과 가회동의 일반적인 한옥에 비하면 큰 편으로 전형적인 도시 한옥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내부 전경



▲ 내부 전시



▲ 배림 선생의 인장들



▲ 내부 미디어 전시



▲ 마루



▲ 침소

# 북촌문화센터

- 위치: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





## 민재무관택에서 문화센터로

2002년 10월 개관한 북촌문화센터는 1021년 지어진 등록문화재 제229호 '서울 계동 근대 한옥'으로 구 민형기 가옥으로 알려졌다가 민형기의 부인인 유진경 가옥으로 고증이 진행되고 있다. 북촌 내에서는 흔히 '민재무관택' 또는 '계동마님택'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원래 안채, 바깥채, 앞행랑채, 뒷행랑채, 사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한옥 개보수 기준 조례에 의거하여 최대한 한옥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중점을 두어 개보수되었다.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커뮤니티 및 방문객 안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홍보전시관'은 원래 뒷행랑채였던 공간으로 현재는 북촌의 역사와 가치를 홍보하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사랑방'에서는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으며, 안채 뒤로 마련된 '정자'는 원래 사당이었던 것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단아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정자를 돌아 안쪽으로 자리한 '별당'은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청마루'는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 내부 전시



▲ 내부 전경 1



▲ 내부 전경 2



▲ 내부 전경 3



▲ 내부 전경 4

# 노무현시민센터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 시간: 15시 ~ 17시

## 주제발표1: 조정구소장 (구가건축)

건축가에게 듣는 요즘 한옥의 쓰임새

## 주제발표2: 전숙희소장 (와이즈건축)

노무현시민센터의 건축과 현재





## 위대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뜻을 기려 지어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시민센터'가 올해 9월 종로구 원서동에서 개관하였다. 입구는 2개층이 오픈되어 시원한 느낌이 들며, 로비 부분까지 외부의 석재 마감이 이어져 연속성을 느낄 수 있다. 지상 1층에서 로비로 들어갈 수 있으며, '노무현의 길'이라는 지하 1층까지 통하는 공간에는 그가 살아온 생애와 목판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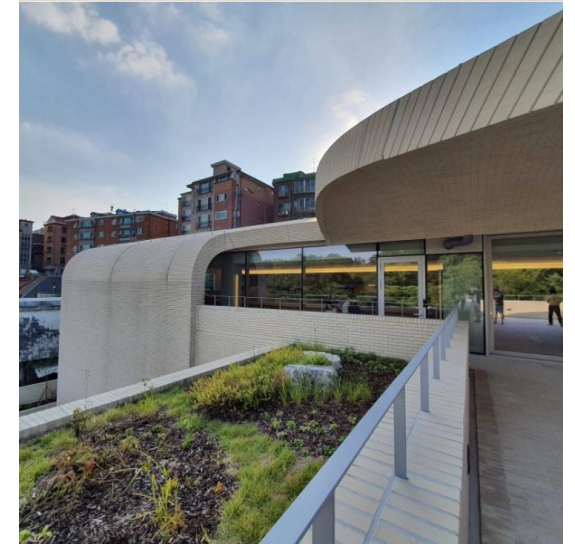
지하 2층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촬영 및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여광장, 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등이 배치되어 있다. 계단식 공간은 지하층과 지상층 두 군데에 모두 있는데, 지상층에서는 휴식 뿐만 아니라 독서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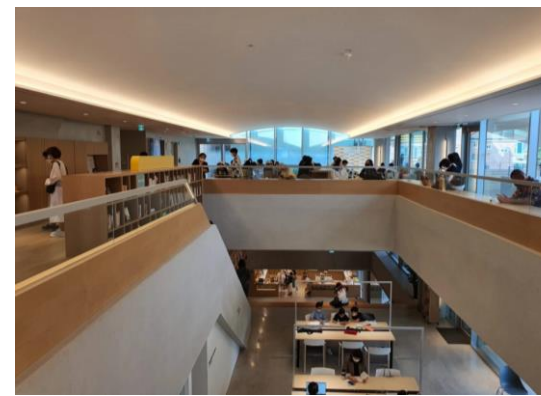
▲ 노무현의 길



▲ 스튜디오



▲ 외부 테라스



▲ 3층 카페



▲ 외부 전경

